

79년 YH사건을 보며 노동운동에
투신하겠다고 결심한 노동운동가가 있다.
그는 그후 17년간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죽음과 맞선 순간에도
오직 동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불굴의 노동운동가 유구영.
그는 지금 그의 일생에서
가장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간암 말기 노동운동가 유구영의 삶

“지금 제게 부여된 임무는 병과의 싸움입니다”

박광우(광주일보 월간국 기자)

그를 만난 날은 공교롭게도 식목일이었다. 그것은 어쩌면 잔인한 약속이었던지도 몰랐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생명의 나무'를 심던 날, 간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고 병마와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노동운동가를 만난 것이다. 그는 양의학으로는 도저히 치료할 방법이 없어 한방치료를 받다가 광주에 있는 민족생활학교라는 단식원에서 식이요법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곳은 지난 94년 고인이 된 김남주 시인

이 '너무 늦게' 다녀갔던 곳이기도 하다. 이날 전국에 심은 나무들의 자양분이 될 파사로운 햇볕도, 단식원에 들어서면서 첫눈에 들어온 화단의 화사한 철쭉꽃도 미치도록 슬프게 느껴졌다. 그러나 필자의 감상과 달리 그는 역시 20년을 한결같이 운동전선을 지켜 온 사람답게 의연하고 강인했다.

다정다감하고 오아시스처럼 맑은 사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정책실 부국장 유구영(39). “언제 일선에서 손을 뗄습니까?”라는 물음에 그는 “아닙니다. 저는 결코 일선에서 물러날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단지 병가를 얻었을 뿐입니다. 현재 저에게 부여된 과제는 병과의 투쟁입니다. 저는 기필코 병마를 물리치고 현업에 복귀할 겁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는 급류처럼 거침없이 살아온 사람답게 담담하게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며 또 그것과 맞서고 있었다.

그는 체격도 작고 인상도 곱상하게 생겼다. 그러나 그는 외모와 달리 결단력과 추진력이 남다르다. 무엇이든 한번 옳다고 생각하면 길게 고민하지 않고 결단을 내렸고 한번 결심하면 앞뒤 재지 않고 돌진하였다. 이는 그가 학생운동을 시작했을 때나 대학 3학년 때 혜성처럼 교내시위 주동자로 등장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충북 청원 출생인 그는 청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76년 고려대 법대 행정학과에 입학한다. 1학년 때는 청운의 꿈을 불태우며 고시에 매달리기도 했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긴급조치라는 사회현실을 법학도의 양심이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릴 때부터 가졌던 기독교에 대한 고민도 학생운동에 쉽게 빠져들게 했다.

“고등학교 때까지의 신앙은 구복신앙이었죠. 하지만 사회적 모순을 눈앞에 보면서 구복신앙에 매달려 있어야 하느냐 하는 고민을 하게 됐어요. 결국 지성인이자 기독교인으로서 저는 사회참여와 반유신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는 이때부터 기독교학생회와 법률행정연구회라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학생운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이 두 모임을 이념서클로 만든 핵심적인 지도자였으나 78년 11월 학내시위 때까지만 해도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다. 고려대 동기인 이명식씨(통일시대국민회의 정책위원장)는 이렇게 전했다.

“76학번들이 고려대에 입학했을 때는 학생운동이 크게 위축돼 있었어요. 75년 4월초에 고려대만을 대상으로 내려진 긴급조치 7호로 당시 학생운동지도부는 물론 1학년 학생만 40명이 제적당할 정도로 초토화됐지요. 76학번들은 학내에서 독서토론회를 만들고 이를 토대로 이념서클을 건설했어요. 학외에서는 진보적 교회와 연결되어 운동을 하었는데 유구영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서클들은 비공개로 활동했으며 유씨는 학내활동보다는 학외에서 주로 야학이나 교회활동에 주력했다. 그러다가 78년 9월 14일 천상만(75학번), 이해자(75학번), 오상석(76학번) 등이 주도하여 긴급조치 7

호 이후 최초의 대규모 학내시위가 일어난다. 연이어 터진 11월 4일 학내시위에서 유구영이 엄주웅(76학번)과 함께 학내시위를 주도한 것이다. 이씨에 따르면 당시 11월 4일 시위주도자로 임씨를 결정한 상태였으나 한명을 더 물색하던 차에 유씨에게 제안을 했는데 “두말하지 않고 승락했다”고 한다. 11월 4일 시위는 산발적으로 끝나고 엄씨는 현장에서 붙잡혔지만 유씨는 도피, 경찰의 수배를 받게 된다. 엄주웅씨는 당시 처음 만난 유구영의 첫인상을 이렇게 전했다.

“어려운 학내상황 때문에 주동할 사람이 모두 잠적을 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 친구를 만났는데 취지를 설명하자 아무 말 않고 ‘해 봅시다’ 하는 거예요. 착하고 순진한 인상이었는데 한마디로 우리 모두는 오아시스를 만난 기분이었어요.”

수배 때문에 활동을 멈출 수는 없다

유씨는 학내시위로 수배를 받다가 79년 3월 구속되었다. 4년6개월의 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복역하던 그는 10·26사건으로 석방되었다. 그는 80년 5·17비상계엄으로 다시 수배가 내려졌다. 그는 수배 중에도 쉬지 않고 일했다. 당시 부산·광주·전주 등 전국 대학을 돌아다니며 79년 카터 방한 반대시위를 조직하기도 했다. 그는 “수배는 저들이 내린 것일 뿐이다. 수배가 되었다고 활동가가 할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수배된 활동가의 보호자는 대중이다. 쉬지 않고 대중들과 함께 사업하고 대중 속에서 활동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스스로 터득한 지론을 실천한 덕택에 엄혹한 시절을 견딜 수 있었다. 86년 수배 때도 노동운동을 계속하면서 6월 항쟁을 경험하기도 했다.

그는 80년 ‘서울의 봄’ 때 교회에서 만난 신윤복씨(39, 간호사)와 결혼했다. 그의 결혼은 동기들 중에 가장 빠른 것이어서 성황리에 치러졌다. 부인 신씨는 유씨가 투옥돼 있을 때 ‘개근 옥바라지’를 했고 부친 세종병원 노동조합 위원장과 초대 병원노련 교육국장을 지낸 노동운동의 동지이기도 하다. 유씨 부부는 현재 은실(교1), 민지(중1) 등 두 딸을 두고 있다. 그가 노동운동을 하게 된 것은 학생운동, 감옥을 거쳐 현장으로 가는 당시 운동권의 공식을 어김없이 따른 것이기도 했지만 더 큰 이유는 후배들에게 책임있는 선배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당시 ‘운동공식’을 따른 사람들도 많았지만 모두가 그랬던 건 아닙니다. 후배들을 지도하면서 현장에 더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선배로서 모범을 보이자

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선배된 도리이자 운동을 책임지는 것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는 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문제가 걸려 현장에 바로 가지는 못했다. 1년동안 한국신학대학원에 적을 두고 한국기독교청년연합(KSCF) 학생간사로 일하다가 소집 면제를 받았다. 그리고 82년 청주로 내려가 노동운동

한 유 동지의 성격이 오늘의 병을 만든 요인인 것 같아요”라며 안다까워했다.

유씨는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노조결성이 활성화 되면서 동료들과 함께 팀을 만들어 서울지역 노조결성을 지원했다. 그는 88년 영등포 기계공단의 2중전기 회사에 취업했다. 그곳에서 그는 노조를 만들어 위원

장을 맡았고 영등포공단노조도 결성해 사무국장으로 일했다. 하지만 노동운동을 열심히 한 것이 화근이 되었다. 회사가 노조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89년 말 공장을 강화도로 옮긴 것이다.

그는 물러서지 않고 그곳까지 회사를 따라갔으나 90년 2월말 사표를 내고 서울지역노조연대 사업을 시작했다. 전노협 사수 선봉대장으로 활동했으며 서노협 결성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선봉대는 노조탄압을 위해 구사대가 구성되자 이에 맞서기 위해 조직된 투쟁체였다. 그는 91년 지자제 선거 이후 서노협 정책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정책실장을 자원한 것은 당시의 노동운



광주 단식원에서 부인 신윤복씨와 함께. 신씨는 초대 병원노련 교육국장을 지낸 노동운동 동지이다.

동을 시작했다. 그가 고향으로 내려간 것은 집안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는 집안을 돌보는 한편 공장에 들어갈 준비를 했다. 83년에는 청주직업훈련원을 수료, 전기기술기능사 자격도 획득했다.

그는 85년 다시 서울로 올라왔다. 집안의 어려움도 어느 정도 해소됐고 징역 갔다 출소한 선후배들이 상경을 권유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영등포 산업선교회 교육간사를 맡아 노동자교육에 힘썼다. 서울에서의 활동이 자리를 잡아가자 그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노동운동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다. 그 일로 그는 경찰의 추적을 받았다. 조직표에 따르면 그는 공장담당이였다.

인생의 가장 큰 보람, 민주노총의 건설

6·29 선언 이후 그는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신나게 활동했다. 유씨와 함께 활동한 김영대 위원장(민주노총 서울본부)은 “그는 마당발이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고 항상 밝은 모습으로 일했고 한번 맡은 일은 반드시 수행하는 성격이었어요. 그러

동현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장기적인 전망을 세우기 위해서였다.

“지자제 선거 직전까지만 해도 노동운동의 열기가 하늘을 찌를 듯 했지만 선거가 끝나자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때 대중투쟁의 열기가 왜 갑자기 사그라들었을까. 현대사회에서 선거의 의미는 무엇인가. 앞으로 선거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겼고 이것을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거지요.”

그는 선거와 대중투쟁의 관계,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주체역량의 강화방안 등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 동지들이 주체파악(주체역량에 대한 자기 진단)을 잘해야겠다’는 냉정한 결론을 내렸다. 그는 연구활동은 물론 현장지원 활동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김영대 위원장은 “유 동지는 서노협 정책실장을 맡으며 노조지원사업을 했지요. 특히 섬유업종연맹 구성을 위해 노력했고 일정한 성과도 얻었습니다. 또한 열악한 지역노조 강화를 위한 연구모임을 만드는 등 서노협 조직강화에 노력했어요”라고 말한다. 유씨는

그후 민주노총 건설에 앞장서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보람이 뭐냐고 묻자 거침없이 “민주노총의 건설”이라고 대답했다.

“민주노총은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총화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도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비로소 노동계급이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물적토대를 만든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체력으로 자리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정치개혁, 통일운동의 기초를 형성했다는 데도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처음부터 민주노총에 너무 엄청난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사실 생김지 얼마 되지않아 바람 잘 날이 없었지요. 정치적 결사체처럼 일사불란한 의사결정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답답한 측면이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대중적인 힘을 갖게 되었다는 점입니다”라고 덧붙이며 앞으로 그 위력이 발휘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가 동지들에게 남기고 싶은 세 가지

유씨가 지금 조직에서 받은 과제는 간암을 물리치는 것이다. 조직의 결성에 누구보다 충실한 그는 다른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 그는 요즘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있다. 앞으로 병이 낫는다면 어떻게 운동을 할 것이며 혹시 그렇게 되지 못할 경우 운동을 위해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오랜 고민 끝에 정리 한 것은 이런 내용이었다.

첫째 진정한 동지사랑이다. 그 동안 우리의 동지사랑이 자기 패밀리나 서클, 정파에 대한 사랑이 아니었는지 반성해 본다. 앞으로 생각이 달라도 운동하는 사람들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의식적이 아닌 무의식적인 사랑에 기초해 운동을 해야 한다. 흔히 분노나 증오가 병을 일으키는 요인이라고 하는데 운동가들은 자본가정권에 대한 분노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 분노를 동지에 대한 사랑으로 승화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둘째 진정한 대중사랑이다. 대중을 사랑하고 대중에게 배우고 대중에서 시작해서 대중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하지만 돌이켜 보면 제 스스로 잘나서 운동한 것은 아닌가? 또 자기 지식, 자기머리로 운동한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본다. 아프면서 살아있는 모든 분들에게 겸허한 자세로 배우기로 마음먹었다. 도두가 나름대로 삶의 방식과 운동 법칙을 갖고 있었다. 대중에게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려면 사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중으로부터 고립된다.

셋째 건강에 대해 무지하거나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 흔히 ‘동지의 몸은 동지의 것이 아니다. 대중의 것이다’고 말했고 성경에는 ‘인간의 육체는 하나님이 주신 성전이다’고 했는데 나의 것이 아닌 대중의 것. 성전의 것을 과연 소중하게 대했는지 반성해 본다. 그 동안 우리는 건강문제에 너무 무지했다. 그것은 무지가 아닌, 교만이었을까. 앞으로 병이 낫고 다시 민주노총에서 활동한다면 수련회 등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반드시 하루 2시간 이상의 체력단련시간을 꼭 집어넣겠다.

지금 그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사람은 병원마저 휴직하고 그를 돌보고 있는 부인이다. 그 동안 가장의 역할도 제대로 못했는데 그저 미안한 마음뿐이다. 두 딸을 출산할 때마다 수태중이었고 수배 풀리고 나니까 집이 이사가고 없었다. 87년 6·29이후 수배가 풀린 후에 집에 들어갔을 때는 유치원 다니던 애가 국민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하지만 고맙게도 두 딸이 곱게 커주었고 부인도 건강에 신경쓰라는 말 외에는 아무런 요구없이 그를 지켜봐 주었다.

그의 쾌유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부인뿐이라. 지난 2월 15일에는 민주노총은 ‘유구영 동지 후원의 밤’을 열어 평소 그와 함께 노동운동을 해 왔던 이들이 그의 조속한 쾌유를 빌었다. 또한 치료비 마련을 위한 후원구좌에는 각 노동조합의 성금이 줄을 잇고 있다. 특히 성문밖교회에서는 매주 한차례씩 유씨의 쾌유를 비는 기도회가 열리고 있다.

지난 4월 9일 병세가 급속히 악화된 그는 부친 서종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다. 김영대 위원장은 “묵묵히 일만 하면서 화나는 일이 있어도 속으로 삭이던 믿음직한 동지였습니다. 그 웃음 뒤에 암세포가 자라나고 있었다니……. 그 고통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사실 유 동지는 92년에도 간경화가 발생해 잠깐 쉬었습니다. 그때 몇개월 쯤 쉬어야 하는데 한달을 못 참고 나왔습니다. 그때 말렸어야 했는데……. 우리가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민주노총 출범식을 앞두고 3, 4일씩 밤샘작업을 한 것이 건강악화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그의 소생을 절실하게 바라보고 있다. 그가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 봄에 활짝 웃음 지으며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날 그를 기다려 본다. ■